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꽃피워가는 나라

지금 세계의 이목을 끌며 평양의 한복판에서 힘차게 벌어지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창조물을 새로 일떠세우는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을 지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숭고하고 중대한 사업이다.

평양종합병원이 한층한층 문광을 드리낼수록 기뻐하는 것은 이 병원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을 공화국의 인민들이고 불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공화국을 어떻게 하냐 굴복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는 적대세력들이다.

얼마전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기초공사에 착수하면서 수습발의 불발탄들 도시해주느니라 크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침략자들이 공화국인민들의 머리에 퍼부은 수많은 폭탄들중에서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

들이다.

당시 침략자들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공화국복반부 전 지역에 근 60만개의 살인적인 폭탄을 떨어뜨렸다. 수도 평양에만도 무려 42만 8 000여개의 폭탄이 무차별적으로 투하되었다.

근 70년동안 땅속 박혀있어서 녹이 쓸대로 쓴 불발탄 한발한발은 당시 공화국을 생명체가 없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침략자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인 폭격만행을 감행했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거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새 삶의 기쁨이 차넘치던

평화로운 강산에 침략자들이 강요한 살인적인 전쟁, 그것은 공화국인민의 행복의 터전을 마르고 생명의 재산을 강그리 도륙내기 위한 대범죄외에 다른것이 아니었다.

침략자들이 모든것을 폐허로 만들어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조선에서는 어떤 창조와 전변의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전쟁의 폐허를 짧은 기간에 가신 이 땅에서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창조와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져왔다.

지금 수도 평양만 해도 천지개혁의 모습을 펼치고있다.

조선식합각지붕을 씌운 인민대학당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오고 승리거리, 천리마거리, 락원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가 전변의 년대들을 이야기하며 황홀한 빛을 뿌리고있다.

아빠뜨창가들마다에서, 학교와 일터, 거리 그 어디에서나 울려오는것은 고마운 제도에 안겨어 사는 인민의 긍지와 행복감이 터치는 즐거움 속삭임, 기쁨의 웃음소리이다.

그 기쁨과 행복의 터전들이 오늘도 옹크리고 배겨연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처럼 《기회》만 엮보는 흉물

스러운 폭탄들... 알려진데 의하면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지난 60여년간 공화국의 전 지역에서 제거된 폭발물(불발탄)들은 무려 80여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불발탄들을 보며 전쟁의 포성은 이미 오래전에 멎었지만 이 제도, 이 나라 인민을 헤치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더욱 무분별해지고있다라는 생각이 분노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전쟁시기 수많은 인명을 앓았던 적대세력들의 총구는 여전히 공화국인민들을 겨누고있다. 실새없이 주변

에서 들려오는 북침전쟁연습의 평음들, 공화국에 대한 갖은 협담들, 판기를 더고 벌어지는 제재소동... 지금 절정에 치달고있는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짓밟고 인민들의 존엄을 삶을 해치기 위한 범죄적책동이다.

적대세력들은 이 땅에서 인민의 웃음과 행복이 꽃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기에 온갖 반인륜적인 소동을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부질없는짓, 공화국은 추호의 동요나 굽힘이 없이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한길로 역사

나가고있고 인민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와 웃음소리는 날라 달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만 가고있다.

절세위인의 정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발걸음은 힘차다.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고 그 승리를 너무도 깊이 확신하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이 정치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 인민을 위한것, 가장 인민적인것이 정의로우므로 되고있다. 반면에 인민의 존엄과 생존을 해치고 행복을 빼앗으려는자들을 누구나 중요하고있다.

공화국은 국호가 말해주듯 인민이 주인된 나라이고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변함없이 실시되는 정치는 인민의 존엄과 안위를 지키고 만복을 꽃피워가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지금 전세계는 날로 걸잡을수 없이 더욱 확산되어가는 악성비루스전염병으로 인해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잠겨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불안과 공포감이라는것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수가 없다. 각각 학교들과 유치원, 탁아소들에서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글썽하는 소리, 웃음소리 랑랑하다.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국가의 최대중대사로 내세우며 전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주시는 정도자의 인민사랑의 정기가 온 나라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피고 지켜주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은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고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다.

그 뜻깊은 병원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연설을 하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사랑의 최고체현자이시고 이 땅에 창조와 전변, 기적과 승리의 력사만을 펼쳐가시는 탁월한 정도자이다.

그이의 사랑의 손길이 한번 닿으면 한적하던 산골도 인민의 웃음넘치는 행복의 별천지로 변하고 그 뛰어난 예지가 한번 빛날치면 웅장한 새 거리, 새 도시가 불쑥불쑥 생겨난다. 그 힘찬 발걸음이 지심을 한번 울리던 만리창공에 주체조선의 막강한 비행운이 새겨지고 백두산악같은 그 기상이 누리에 펼쳐지던 조선은 더 높



인민의 복민향상을 위한 길에서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으로

네해전 9월 어느날 경에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보건의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아담하고 정갈하게 건설된 공장 전경을 보시며 멋들어지게 잘 건설하였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보건산업은 의료부문에서 생명수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보건의료시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의료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보건의료산업은 사회주의의성에서 우리의 우월성의 상징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성에 관한 문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9월 룡악산물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생활을 공급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민들에게 먹는물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인민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나라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들어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의료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보건의료산업은 사회주의의성에서 우리의 우월성의 상징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의료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보건의료산업은 사회주의의성에서 우리의 우월성의 상징이라고 하시였다.

지방특산물생산을 장려하도록

세해전 10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방특산물생산에 큰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방특산물생산에서 먼저 짚어야 할것은 개성인삼이라고 하시며 개성인삼은 예로부터 진귀한 약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의 고유한

특산물이라고 하시면서 개성인삼배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개성인삼뿐 아니라 안변감, 성천약밤, 회령백살구를 비롯한 지방특산물들을 보호하고 그 생산을 늘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만발하는 《철쭉》

양말의 질을 더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신 그이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는 인민들에게 차례질 양말에 대한 생각이 떠날줄 모르시였다.

양말생산이 정상화되는가 알아보시며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시고 상표도안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다.

양말생산이 정상화되는가 알아보시며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시고 상표도안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다.

는 양말들을 생산하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한다고, 상표도 안도 부단히 갱신하고 포장도 잘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아동양말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무늬를 곱게 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아이들과 친숙해진 아동양말 《령리한 너구리》에서 나오는 《세 친구》를 그린 무늬를 새겨 넣도록 하시였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생활에서 양말은 소소한 소비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라면 그것이 크든작든 어느 하나 놓침없이 세심히 관심하시는 그이의 사려깊은 정신은 인민들이 신은 양말에도 스며있는 것이다.

자연의 꽃계절은 한철이다. 하지만 이런 따스한 사랑에 부러워 두었기에 《철쭉》은 사계절 만발하게 피어났다.

지금 공화국은 력사의 온갖 도전과 역풍을 맞받아 헤쳐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진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오늘날의 정면돌파전은 곧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가 있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가는 사회주의이다.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는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

지만 그렇지 못하면 좌절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복수시키려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

활을 높이는데 철저히 지향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전진도상에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 도 인민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있으며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염병확산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지

력한 힘에 의거하여 백승만을 펼쳐가는 사회주의이다.

오늘도 강권과 전횡이란 무하는 이 행성에서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개혁해나감자면 강위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적대세력들의 각종 위협과 압박소동이 계속되는 속

심함과 락관에 넘쳐 제힘으로 부강번영의 미래를 앞당겨오고있는것이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정도는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는 그 개혁도 그 전진완성도 탁월한 수령의 정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가 있고 정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이 있으며 불패의 군사력, 자립, 자강의 거대한 원동력이 있으면 공화국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은 보다 큰 전진의 보복을 내질게 될것이다.

백승을 쫓는 조선의 사회주의

현된 사회주의인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위한 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우므로 되며 최우선시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여 국가의 로선과 정책들이 수립되고있으며 경제건설도 인민생

하고 평양종합병원건설도 다 그치고있는 공화국이다.

이 땅에서 창조되는 모든 재부들은 다 국가와 인민자신을 위한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 모두가 사회주의를 역만급과도 바꾸지 않을 귀중한 삶의 터전으로 간주하고있는 것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강위

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가고 있는 공화국의 경우에는 더우기 그러하다.

공화국은 일심단결과 강력한 자위의 군사력 그리고 자립의 튼튼한 경제토대와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진 강대한 나라이다. 이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세계적인 동란이나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의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가 있고 정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이 있으며 불패의 군사력, 자립, 자강의 거대한 원동력이 있으면 공화국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은 보다 큰 전진의 보복을 내질게 될것이다.

대동강에 떠있는 전민학습의 대전당

창립 기념식

창립 기념식

창립 기념식

창립 기념식

